

[H 갤러리]

DECEMBER COLLECTION

12. 1. – 12. 31.

PHILIP. HAN.

PHOTO BY CHO MIJIN

12. 1. 목. 논리를 탐하다



조미진 작가 페이스북

전사 워크숍 계절이 시작됐다. 다사다난 했던 올해, 무엇으로 마무리 짓고 어떻게 시작할까!

예년과 다른 점을 먼저 꼽으면 이번 12 월 과정 키워드는 통합이다.

한 해 농사 작목 중 캐시카우 역할을 한 프로그램이 컨설턴트 과정에 다 모였다. 이름하여

#컨설팅프로젝트입문

첫 시작은 #로지컬씹킹, 바바라 민토 여사를 오랜만에 다시 본다. SO WHAT/WHY SO 이 애들도 합류한다. 이 두 녀석은 컨설턴트 입문 문턱에서 수문장 같은 역할이다. 이 문을 매우 잘 통과하는 것이 입문 과정 핵심이다.

오래전 술한 밤을 이 애들과 동고동락 한 시간이 떠 오른다. 참 되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만 쓸 수록 빛이 나는 녀석이기도 하다.

12 월은 이렇게 #논리적사고 로 시작한다.

PHOTO BY CHO MIJIN

12. 2. 금. 프로젝트를 탐하다



조미진 작가 페이스북

논리적 사고는 컨설턴트 뼈대라면, 뼈에 붙는 살은 무엇일까? 바로 프레임워크이다.

이 두 조합은 컨설턴트의 일이라고 부르는 프로젝트에 있어 'INPUT 논리적 사고' 'TRANSFORMATION 프레임워크' 'OUTPUT 결과물'이라는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이 요약은 너무 함축적이다. 논리와 프레임워크, 이 두 조합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설명한다는 것이 말이다. 무리수를 둔 것이다.

한데, 이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프로젝트 내내 논리와 프레임워크 활용 역량은 컨설턴트의 강점이 되기도 약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 말이다. 그래서 이 역량을 강점으로 유지하기 위해 컨설턴트는 매일매일 논리를 훈련한다. 여명이 아름다운 까닭을 이때 터득한다.

PHOTO BY CHO MIJIN

12. 3. 토. 전략을 탐하다



조미진 작가 페이스북

논리적 사고와 프레임 워크, 이 둘을 한곳에 묶는 프로젝트 관리 그림, 이 프로젝트는 대체 무엇일까?

여러 애깃거리가 많다. 한데 그 모든 것은 이곳으로 통한다. 마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말이다. 전략이다.

기업은(또는 한 개인이라고 해도 된다) 사회 경제 활동을 하면서 경쟁은 필연적이다. 이 필연적 활동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려면 개선과 혁신은 늘 따라붙어야 한다. 하지만 이 일은 일상 업무와는 달라 특별한 수고가 필요하다. 이럴 때 프로젝트를 한다고 말한다.

즉 프로젝트는 전략적 우위를 높이기 위한 기업 활동이고 개인의 자기계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세 형제가 한곳에 모여 기막힌 송년회를 계획 중이다. 이름이 너무 거창했는가~ 이 모임은 바로 컨설턴트 과정이다.

올 한해 마지막 12월 이 송년회를 잘 이끌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애쓰고 있다. 알맞게도 오랜 시간 공들이고 흥미를 갖고 있는 터라 잘 할 수 있겠다 싶다.

PHOTO BY CHO MIJIN

12. 10. 토. 업무개선 용어 개념을 탐하다



조미진 작가 페이스북

업무 개선의 다른 이름은 문제해결이다. 이 문제해결은 절차이고 5 단계 구성이다. 그 5 단계 각각에는 해당 절차를 특징하는 용어가 있다. 처음 접하는 용어는 문제 정의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주제와 이슈, 문제 그리고 과제라는 용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각각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상호작용하는지 그 원리를 터득하면 문제해결은 더는 어렵지 않다.

여기에서 이 점은 한번 짚고 가야 한다. 문제와 문제점은 어떤 뜻이고, 차이점은 무엇이며, 우리는 이 두 용어 의미를 바르게 쓰는지를 말이다. 문제는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고, 문제점은 그 문제의 원인이다.

원인분석과 대안탐색 단계를 거치면 해결(안) 선정 단계에 이른다. 여기서는 해결(안)과 해결책은 각각 어떤 뜻이고 어느 맥락에서 쓰면 알맞을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해결(안)은 보고자 의견이고, 해결책은 의사결정이 완료된 아이디어를 뜻한다.

문제해결 보고서에는 네 가지 계획 요소를 포함한다. 인적자원, 물적자원, 스케줄, 결과 이미지가 그것이다. 이를 역할과 책임, 예산, 일정, 기대효과로 바꿔 쓰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력이다.

문제해결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쓰는 것이 문제해결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이 소통이 적절하고 적합하게 통했을 때 자신감이 충전되고 있음을 성찰했다. 이 점이 가장 뜻깊다.

PHOTO BY CHO MIJIN

12. 14. 수. 실수를 바로잡다



조미진 작가 페이스북

예측이라고 말을 했어야 했는데 성급하게 인과 관계라고 규정했다. 말은 분명 티를 낸다. 한 분이 모순을 지적한다. 그 지적은 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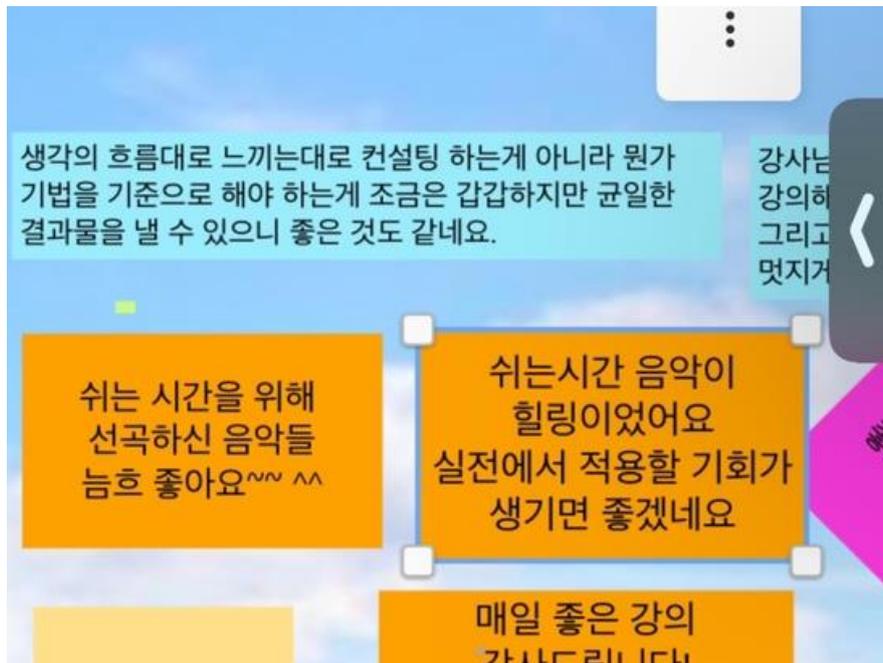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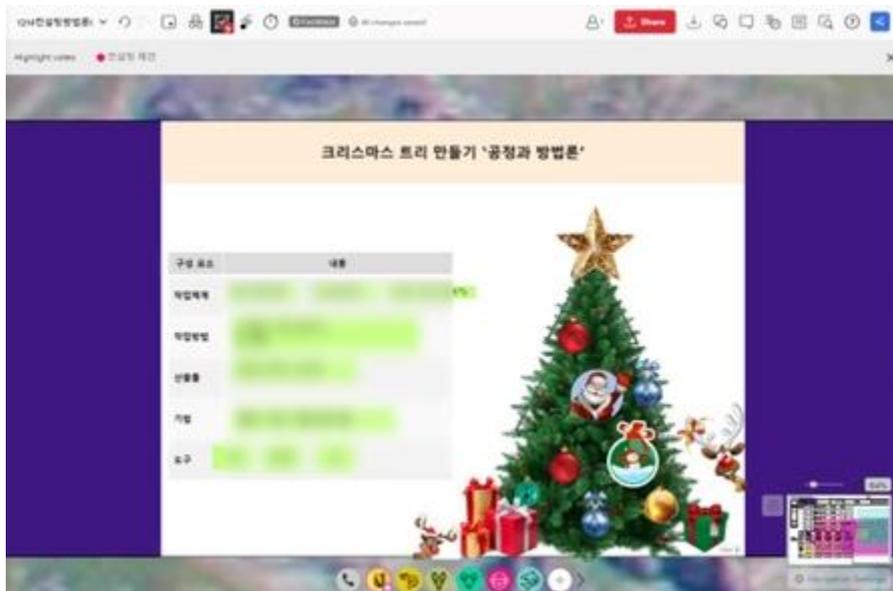
상관분석은 관계가 높다. 밀도가 높다 즘으로 서사적인 표현을 용납하지만, 회귀분석은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

예측의 신뢰성을 따지는 것과 별개이다. 컨설턴트는 단어를 신중하게 써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달았다.

이는 꼭 컨설턴트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 문제정의를 하는 입장에서 표현력은 바람의 방향을 바꿀 만큼 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PHOTO BY CHO MIJIN

12. 15. 목. 크리스마스 트리를 탐하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완성한 후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어디서냐면 온라인 뮤탈에서 말이다. 온종일 로직트리와 구조화에 낫 다운이 된 심신을 달래는데는 동심이 역시 최고였다.

점등식을 마치고 뮤랄 셀레브레이션으로 성탄 분위기를 한껏 자아냈다. 비대면 상황이 이제는 완숙미를 자랑하는 수준이다. 새삼스럽다가도 이 성과를 이룩한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이 위대해 보이기까지 한다. 마치 모래 알갱이 만한 불빛이 스스로 발화해서 온 세상을 밝혀주는 신비감까지 느낀다. 컨설턴트 역량은 따 논 당상이다.

무엇인가 뜻깊은 일을 하고 있다는 존재감, 이 맛이 정말 깊은 맛이다. 여기 모인 분 모두가 그 향을 낼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맞이한다. 첫눈 같은 들뜸이고 함박눈 마냥 행복하다.

PHOTO BY PHILIP HAN

12. 29. 목. 비행기를 탐하다



PHOTO BY philip Han

비행기를 올려보며 소원을 빌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 또는 한 번쯤 내게도 그런 행운이 깃들길 바란 일을 만끽했을 때 내가 비행기인 양 하늘을 우주를 유영하는 듯했다. 기분이 좋았고 온 세상을 얻은 듯싶었다.

그런 일이 2022년 세 가지다. 하나. 문제 해결 과정 만족도 5.0을 기록한 날 울뻐했다. 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과정 소감에서 음악 선곡이 정말 힐링 됐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브라보! 브라보! 를 외쳤다. 셋. 컨설턴트 5일 과정을 모두 마치고 기진맥진할 즈 커피 쿠폰이 도착했다. 학습자 한 분이 강사님 열정에 큰 힘을 얻었다며 보낸 선물이었다.

Epilog



PHOTO BY cho mijin

2023 년 전망을 곳곳에서 듣는다. 긍정과 부정의 소식이 묘하게 겹치는 듯도 하고, 한쪽으로 기울기도 한다. 얘기는 그렇다 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전 [직장인 책읽기] 직책 팟캐스트에서 '협력의 진화' 로버트 엑셀로드 편을 들은 기억이 떠올랐다. 협력이 문명을 발전시켰고, 이기적 인간이 살아 남은 것도 사실은 협력 때문이라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틱퓏텃 전략이다.

모든 사람은 협력의 대상자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상대가 배신하면 곧바로 복수를 해야 하고, 그렇게 서로 한 방씩 주고받으면 비로소 협력의 기틀이 만들어진다는 말은 매력적이었다.

게다가 협력은 상대가 어떻게 되든 내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경제를 발전시켜다는 오랜 관념을 타파하고 새 시대에 가장 걸맞는 문명 전략으로 각광 받고 있다는 점 또한 흥미로웠다.

사실 이 지점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상대의 배신이 배신인 줄 모르고 그럴 사정이 있겠 거니 한 점, 반대로 내가 그 주인공이 일수도 있다는 점이 그렇다. 성찰의 시간이 필요했다.

도서관에서 협력을 키워드로 몇 권 책을 빌렸다. 2022 년을 배웅하고 2023 년을 마중하는 시점에서 나를 굳건히 해 보고자 하는 다짐이다. 모토도 정했다.

협력의 시대 2023, reSET 으로 말이다.

[H 갤러리]를 2022 년 한 해 동안 아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작가 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애초에 그림읽기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어느 때부터 그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키고 말았던 점을 성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격려와 응원을 다해 주셔서 새해에는 새롭게 어떤 것이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2023 년 올 한 해 작가 님 모두 소원 성취하시길 누구보다도 뜨겁고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원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3. 1. 1. 일.